

● 開會辭



새로운 座標를
設定할 때

會長 李 瑄 根

오늘 제13회 全國圖書館大會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臨席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도서관계 동지여러 분!

여러 가지 바쁘시고 먼거리임에도 불구하고하시고 이렇게 많이 參席하여 주신데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전국도서관대회는 본 협회가 1955년도에 창립된 以來 滿20周年을 맞이하여 成年이된 뜻깊은 해에 開催되는 全國圖書館大會로서 지금까지의 그 어느 大會 보다는도 큰 意義를 지니는 大會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圖協二十年을 돌이켜 보면, 그간 우리 圖書館人들은 協會發展이 곧 圖書館 發展이라는 精神에서 刻苦의 努力을 傾注하여 왔으나 成年이 된 오늘 날에 이르러서도 滿足스러운 發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圖書館 全體의 發展 또한 社會的 要求에 뒤따르지 못한 매우 未盡한 狀態에 머무러 있어서 크나 큰 분발이 더욱 아쉬운 것입니다.

本人도 學界에 오랫동안 몸담아 從事하면서 圖書館事業의 重要性을 늘 強調해 오던 사람중의 한사람이었으나 이제 直接 圖書館人의 一員으로서 일을 해보니 여러 분들의 勞苦를 正確하게 알게 되었으며 또한 圖書館事業의 重要性和 그 發展의 切實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圖書館의 發展은 國家發展과 文化向上을 위하여 어느分野에 못지 않게 重要하고 堅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沈滯를免치 못하고 있다는 點에 대하여서도 안타까움을 禁치 못하고 있습니다.

圖書館 發展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는 公共圖書館은 圖書館數의 絶對的 부족과 豫算의 부족, 專門職의 부족, 運營의 不實함 등 貧弱하기 이를데 없는 形便이며 學校圖書館 또한 圖書館中心의 바람직한 學校教育은 한낫 理論에 그치고 있으며 數年前 各 市道에 配定했던 司書教師 T.O마저 요즘에 와서는 없애는가 하면 司書教師의 進路를 열어주지 않는데다가 一線에서 일하고 있는 司書教師들은 과중한 업무량에 겹쳐 도서관 擔當을 기피하려하고 있어 오히려 退步하고 있는 實情에 있는 것입니다.

大學圖書館 역시 大學의 心臟部라고 할 수 있는데도 圖書館 資料가 태반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全體圖書館은 客觀的인 要請과 現實의 乘離라고 하는 矛盾을 안은채 좌절감만 안겨주는 느낌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아직까지는 圖書館政策의 貧困에 그 原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將來에 우리 나라 圖書館界도 先進된 外國과 같이 圖書館의 重要性이 眞實로 認定이 되어 絶對的인 育成이 이루어 질 것으로 確信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圖書館人들은 오직 使命感하나로서 보람을 찾아 온갖 어려움을 克服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大會가 圖書館政策問題를 主題로 選定한 것도 이러한 意志에서였다면 圖書館事業 發展에 대하여 좀 더 우리 스스로 反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새 里程標를 세우는데 衆意를 모으는 값진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來年度에는 우리 圖書館界로서 前例없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나라 建國以來 가장 큰 規模가 될 國際會議인 國際圖書館協會聯盟 大會를 서울에서 開催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 世界大會는 國家的인 次元에서도 매우 重要的인 의미를 가지는 大會로서 우리 나라 圖書館發展을 위한 크나 큰 밑거름이 되어질 것으로 期待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本人도 이 世界大會의 誘致를 위하여 任員 여러 분들과 같이 參與해 보았으나 共產國家의 맹렬한 방해와 國際社會속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 大會를 誘致하기 까지의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政府當局의 각별한 協助와 후원이 있었고 여러 분들의 성원과 祈願이 있어 이 大會를 마침내 誘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거듭 심심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圖書館人 여러분!

그러나 이 世界大會를 어떻게 잘 치루어 所期の 成果를 거두느냐 하는 더욱 重要하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들 앞에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全世界의 耳目은 서울 大會를 注目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각별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정부에서도 이 世界大會를 통하여 얼마만큼 國威를 宣揚하느냐 하는 結果에 대하여 期待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 世界大會를 어떻게 치르느냐 하는 것은 우리 圖書館界의 도약의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는 重要的 大會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世界大會를 開催하기 위한 財政的인 問題는 이 國際會議의 중요성에 비추어 政府에서 最大의 支援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 國際會議을 開催하는 主人公은 協會를 中心으로 한 圖書館人들인 여러 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舉國的인 大會를 잘 치루느냐 못치루느냐 하는 것은 모두 우리들의 責任인 同時에 잘 못치루는 結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全的으로 責任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일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勞力을 이곳에 集中하여 期待하는 以上の 成果를 거두도록 함으로써 圖書館人들의 能力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여러 분들의 積極的인 參與와 協力을 거듭 強調하면서 또 쪼록 오늘 이 全國圖書館大會가 圖書館人들의 團結된 힘을 再確認하고 새로운 座標를 設定하는 機會가 되도록 진지한 討議가 進行되어서 알찬 結實을 얻도록 勞力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全國圖書館大會를 위하여 훌륭한 場所를 提供해 주시고 모든 準備를 베풀어 주신 趙永植慶熙大學校 總長님께 感謝를 드리며 아울러 徐仲錫 圖書館長님과 圖書館職員 여러 분들의 勞苦에 대하여서도 고마움을 드리는 바입니다.